

# 녹 취 록

열람용

 **오케이** 속기사무소

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66-22 (다산동 엘센트로타워 3층, 318호)

TEL : 010-3419-5522    E-mail : oksokgi1@naver.com

# 녹취록

녹음일시	2024년 7월 2일 14:44
녹음장소	박준한의 휴대폰 통화내용
대화자	박준한, 최병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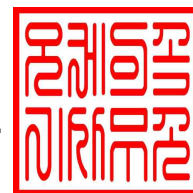
본 녹취록은 의뢰한 녹음파일과 일치함을 증명함

2024년 7월 20일

국가공인 속기사 황정은



OK 오케이속기사무소



- 녹음일시, 장소, 대화자, 녹음자의 설정은 의뢰인의 진술에 의거함.
-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에 의함.
- ( ) 안의 내용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녹취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록된 내용임.
- 청취불능에 대한 부분은 ‘..’ 으로 표시함.
- 본 녹취록은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,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.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예. 여보세요?

최병선 : 응.

박준한 : 예. 형님! 뭐, 돈 빨리 주셔야죠!

최병선 : 주고 싶다고. 아유!

박준한 : 아니, 보니까 그거 뭐, 형! 회사도 파산하셨어요? 뭐 날아왔던 데, 저한테?

최병선 : 어떤 거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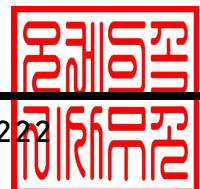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대한상인 파산했다고?

최병선 : 아, 예전에 다 집어넣은 거야. 그거랑 저기하고 붙여야지, 뭐.

박준한 : 아니, 그럼 저는 뭐 어떻게 돈 받아야 돼요, 형님? 솔직히 말 해서 되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.

최병선 : 아, 내 개인이 주지.

박준한 : 그러니까 언제, 어떻게 줄 거예요? 형! 두 달만 기다리면은 따박따박 1천만원 나온다고 해서 나 별, 뭐, 소송이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, 저도!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, 진짜로 이거?



최병선 : 하고 있어.

박준한 : 회사 파산됐다고 나오면은 이거 돈 받을 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? 제가 봤을 때는.

최병선 : 아유, 개인이 주면 되지, 뭐.  
아, 그건 다 넣어야 돼. 파산한 데 넣어야 돼서 그냥 다 넣은 거고. 뭐 우리 저것도 넣었는데. 아버지 것도 넣어놨는데, 뭐.

박준한 : 아니, 뭐, 그러면 집에서도 아실 거 아니에요? 파산한 거는? 넣게 되면?

최병선 : 내 동생은 알고 있어. 파산한 것도. 내가 얘기했지. 뭐, '넣어야 된다고. 날라갈 거다.' 얘기했지. 그건 내 개인이 주는 거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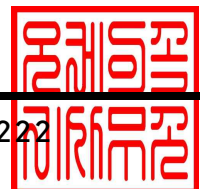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그러면 이제 저희 거 1억3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, 형? 진짜로?

최병선 : 아니, 내가 뭐 1천만원씩 매달 줄 거야. 근데 지난달에 뭐 안 됐어. 지금 일하는 게.

박준한 : 형!

최병선 : 그리고 진행하는 게 있어. 내가 따로.

박준한 : 아니, 땡큐마트로, 형! 뭐, 월 3~4천씩 나온다면요, 막말로? 그것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, 저번에?



최병선 : 그건 그거고. 그걸로 뭐 그거 어떻게 갚냐. 언제 갚냐.

박준한 : 아니, 거기에서도 왜 월 1천씩이 안 됩니까? 진짜로?

최병선 : 아, 지금 안 돼! 우리 뭐 변호사 파산하고 뭐 하느라고, 뭐. 내가 뭐 이거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? 돈 10원 안 빼놓고 진짜, 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. 변호사비도 내가 못 줘가지고. 변호사비도 한 5백씩 지금 한 네 달, 네 번 더 줘야 돼.

박준한 : 아휴!

최병선 : 그거 끝나면 좀 여유 있으니까. 지금 나가는 것들 다 줄이고 있으니까.

박준한 : 아, 형님! 쌤큐마트 자체는 대한상인 거 아니었어요? 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쌤큐마트,

최병선 : 아, 거기 조합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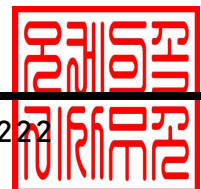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예?

최병선 : 조합 거지! 그게 사실.

박준한 : 그러면 형 거도 아니었구요?

최병선 : 아, 그거 대한상인이 위탁해서 한 거지.

박준한 : 아, 대한상인 위탁을 받은 거예요?



최병선 : 그렇지, 뭐. 5년짜리 계약해가지고 5년 단위씩 저거 해서 한 거잖아. 연장해서.

박준한 : 그럼 그걸 지금 양동군 회사로 던져놓은 거고? 양동군은,

최병선 : 그렇지. 조합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, 그게.

박준한 : 그래서 지금 양동군 회사로 돌아간 거고, 그쪽에서 돈 나오는 거고요? 어차피 형 뭇일 거 아니에요?

최병선 : 거기서 조합에다 내고, 아유! 거기 보면 되지, 내 거.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.

박준한 : 그러면 양동군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, 이게? 이렇게 돼버리면? 뜬금없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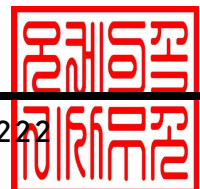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아니, 바지야, 바지! 개는!

박준한 : 어차피 형이 사장인 거죠?

최병선 : 아니, 개가 바지라니까! 양동군이!

박준한 : 그러니까 양동군 바지인 거고, 실제 사장은 조합인 거예요, 그러면?

최병선 : 조합이지. 응. 다 넘어갔지. 원래 그게 완섭이가 내 동생이 조합의 상생위원장이라 그걸 가져가기로 한 거야. 근데 내 동생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조합에서, '그럼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럼 해라.' 넣어놨지.



박준한 : 아휴! 그러면 저는, 저는,

최병선 : 아직 변호사 비용도 내고 있어. 변호사 비용도.

박준한 : 아니,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게? 저희는 진짜로 돈이 어디,

최병선 : 내가 1천만원씩 줄 거야. 아니, 그러니까 딴 데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, 일을.

박준한 : 형! 그게,

최병선 : 뭐 유통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.

박준한 : 그게 두 달 전이에요. 기다리라고 해서 저 기다렸잖아요?

최병선 : 아, 그러니까. 나도 계약을 이걸 3월 20일날 계약서 써놓고 지금, 일이 안 돼, 일이 계속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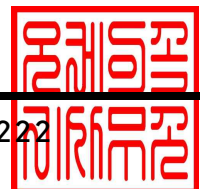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그건 또 무슨 계약서인데요?

최병선 : 7월 4일날 뭐 하고. 그레이 하는 거지. 2차 PG!

박준한 : 2차 PG요?

최병선 : 에이전시로 내가 개인으로 계약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거지.

박준한 : 아니면은, 아니, 뭐 생큐, 생큐마트 뭘 통해갖고라도 달 얼마씩이라도 변제를 계속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?



최병선 : 그거 지금 수익이 없어.

박준한 : 아니, 그전에, 형! 형! 솔직히 말해서 형한테 3~4천씩 떨어졌던 회사인데 수익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

최병선 : 야! 그게 있으면은, 씨이, 그게 있으면 내가 파산했겠냐?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. 이자가 한 달에 4~5, 내가 매달 한 7천씩 냈어, 7천! 한 1년을 그러다가, '야아~, 이걸 도저히 못 낼겠다.' 뭐 그 사건도 있지, 뭐 있지, 그래서.

박준한 : 아니, 그러면은 회사 없애면은 저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? 그 앞단에다가 소송 걸어놓은 거? 7억인가, 8억짜리 소송!

최병선 : 그건 내 개인이잖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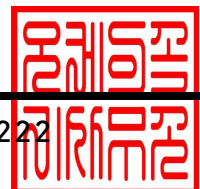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그건 형이 개인으로 해놓은 거고?

최병선 : 응. 지금 대구지점으로 넘어갔어, 이번에. 서울지검 송치됐다가.

박준한 : 예.

최병선 : 개 김웅, 대구교도소에 있잖아? 거기서 대구지점으로 넘어갔다가, 오늘 또 왔더라고. 대구지검 검사가 오늘 댔던데?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댔다고 나보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.

박준한 : 그러면 우리 돈 1억3천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, 그러면?





최병선 : 다 들어갔지, 거기! 그날, 당일날 다 들어간 거지.

박준한 : 아휴!

최병선 : 당일날 다 들어갔지. 7월 1일자로, 어제부로 배정됐네. 이승재 검사, 대구 서부지청. 이번에 내가 조사받으러 가야지. 이건 내 개인으로 걸었잖아. 나랑 백성만이. 둘이.

박준한 : 그럼 저는 어차피 지금 형 아니었으면은 못 받을 판이었던 거 아니에요? 막말로, 처음부터?

최병선 : 내가 너랑 내 동생 거기는 쥐야지. 2억3천에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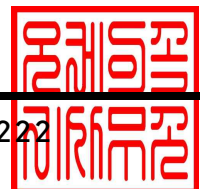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아휴! 나는 진짜 더 이상은. 사실 저희 엄마하고 지금 난리거든요. 소송하겠다고 하고. 내가 두 달 동안, 난 두 달 동안 저거 해놨어요. 내용증명 보내놓은 거예요. 소송도 아니고. 소송한다고 하는 거, '그냥 내용증명 한번 보내고 말자. 아, 그거 지금 명령, 나중에 판결문이라도 받고 나면은 뭐라도 말 나온다.' 근데, 형! 판결문도 안 받았잖아요? 막말로 이야기해서.

최병선 : 판결문 왔던데?

박준한 : 그거를 형이 수령을 해줘야지 판결문이,

최병선 : 어제 수령했어. 우리 와이프가. 우리 딸이 했나, 와이프가 했나, 밤에 했어.

박준한 : 그거 안 뒀던데요? 안 뒀어요, 형님! 그래갖고 집에서 이거 소송한다고 개난리 났어요. 지금 변호사 저거 쓰고서.



최병선 : 준한아!

박준한 : 형! 나는 지금, 나는 중간에서,

최병선 : ...알겠고, 응, 알겠는데,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,

박준한 :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, 형!

최병선 : 내가 받았다고 그랬잖아, 아침에? 내가 받았다고 그랬잖아?

박준한 : 아니, 받았으면은 뭐가 뜬단 말이에요. 뜬 게 없으니까 집에서  
는, ‘봐라. 결국 뒤통수 쳐버렸다.’ 이렇게 되니까 나도 할 말  
이 없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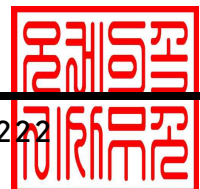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내가 받았다고 지금 했고. ‘지앤케이 파트너스 마정자, 5월 30  
일, 사법보좌관 이태영, 지급 명령.’ 어제 받았다고, 어제! 근  
데 뭘 자꾸 안 떴다고 뭐. 내가 그런 걸 거짓말해서 뭐 해?

박준한 : 아니, 진짜, 아니, 그러니까는 제가 뭐냐면, 이게 서류란 말이  
예요. 떼야지, ‘봐라.’ 나도,

최병선 : 어제 받았다고. 내가 지금 너한테 카톡 보내고 있잖아.

박준한 : 아휴!

최병선 : 이거랑 4장이 왔어. 우리 딸이 받았고, 어제 우리 마누라가 사  
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야. 그걸 뭐, 내가 안 받은 걸 뭐,  
안 받아놓고 너한테 왜 받았다 그래.



박준한 : 아휴! 나는 모르겠습니다.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.

최병선 : 어제 일자로 수령됐어.

박준한 : 나는, 나는 진짜 집에서는 뭐라 나도 할 말이 없어요. 뭐라고, 진짜로.

최병선 : 하여튼, 준한아! 좀 기다려. 내가 지금 뭐 있는데 지금 뭐 저거 하나.

박준한 : 아휴!

최병선 : 계약해 놓은 거 있으니까, 뭐 7월 4일인가부터, 내일 모레부터 일한다니까. 일하면 내가 거기서 받아서 뭐, 일부 먼저 빼서 내가 그거 먼저 갚아야지, 나도.

박준한 : 알겠습니다. 지금, 아유, 나 집에 다시 이야기 좀 해봐야 돼요. 아유, 나 지금, 지금 완전히, 형! 나 완전히 너덜너덜, 아휴!

최병선 :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.

박준한 : 아휴! 내가 뛰어내리고,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, 진짜. 일단 알겠어요, 형!

최병선 : 응.

- 끝 -

